



국제성서유니온의 150년 역사

쉬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 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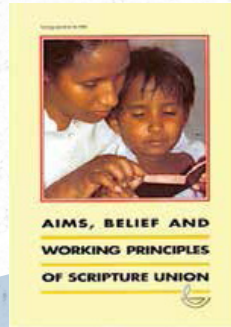


1867년 6월 2일 조시아 스파디어스는 런던 이즐링턴의 집 거실로 15명의 아이들을 초대해 그리스도를 소개했다. 이것이 성서유니온의 시작이었다.

영국 북부 지방에서 자신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도록 격려하는 애니 말스턴이 있었다. CSSM은 애니를 돕기로 결정하고 1879년 4월 1일에 첫 번째 '어린이 성서유니온 성경 읽기 표'를 제작, 배포했다. 이는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일으켜 구독자 수는 곧 6,000명으로 늘었다.



1960년 5월 12개 나라에서 모인 21명의 리더들은 영국의 '올드 조르단'에서 역사적인 성서유니온의 국제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서 세계를 지역별로 구분한 '지구'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자립 운동체들은 '지구' 내 사역을 발전시킬 책임을 맡게 되었다.



1985년 짐바브웨 하라레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성서유니온의 목적, 신조, 성명, 기초철학이 채택되었다.

사역이 점차 다양해졌다. 학교 사역, 캠프 사역, 방학 활동 사역과 함께 에이즈 환우 지원 사역, 노숙 어린이 사역, 고아원 사역과 같은 특수 사역들이 빠르게 성장했다.



성서유니온 서점은 최우선적으로 사역을 위한 창조적 자료들을 보급한다.



성서유니온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인터넷 온라인, 소셜 미디어, 모바일폰 앱을 기반으로 한 사역 자료들을 개발하고 있다.



2014년 성서유니온은 진정한 글로벌 운동체로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구조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지구'를 '커뮤니티 그룹'으로 바꾸고, 리더십을 세워 커뮤니티 그룹 내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1867

1879

1892

1923

1960

1985

1992

2001

2012

2017



1868년 8월 여름 조시아는 북웨일즈의 랜디드노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해변 모래 위에 'God is LOVE'라고 적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아이들에게 조개껍질과 해초로 글자들을 장식해보라고 권했다. 이것이 Beach Mission (해변 선교회)의 시작이었다.

1892년 8월 잉글랜드 남쪽의 리틀햄튼 해변에 55명의 소년이 모였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어린이 캠프였다. 이 캠프는 비약적으로 성장해 현재는 전 세계에서 열리고 있다.



CSSM은 1893년까지 약 13,000,000만 장의 어린이 전도지를 15개 언어로 번역해 세계 곳곳에 배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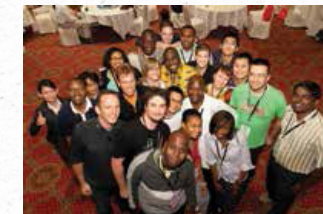


1934년에는 스위스 베네스에 캠프장을 열었다.

1980년대 말 공산주의가 무너지자 동유럽, 동아시아, 구소련 지구에서 성서유니온 운동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1992년 5월 네덜란드 데벤에서 열린 국제대회에는 92개 나라에서 692명의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했다. 이 대회는 성서유니온 설립 125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비전'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이어서 2001년에 영국 노팅햄에서 열린 국제대회에는 800명이 넘는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했다.



2012년 성서유니온은 '듣고, 분별해서 행동하자'는 구호 아래에서 글로벌 프로젝트인 '리빙호프'를 시작했다.

2017년 150주년을 맞은 성서유니온은 120개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다. 11월에는 각 나라의 리더들이 '미래를 위해 연료를 공급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총회로 모인다. 여기서 새로운 국제 이사들을 선출할 것이며, 다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걸어온 지난 150년을 돌아보며 축하할 것이다.



톰 비숍이 조시아의 이즐링턴 사역과 비슷한 성격의 어린이 사역을 런던 남부에서 시작했다. 조시아와 톰은 곧 동역자가 되어 CSSM (어린이 특별예배 선교회)을 조직했다.

영국 CSSM를 본부 삼아 CSSM과 SU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1883 애들레이드 휘트니 일본 개척자



1901 로디 아차발드 인도 개척자



에드먼드 클락 호주 개척자

